

# 지방하천 재해위험 예방 기여

### 익산국토청, 올해 2625억원 투입... 상반기에 65%, 1707억원 집행기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9년도 하천예산 2625억원 중 상반기에 1707억원을 집행해 국가 및 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909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42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38억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금년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SOC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1.0%보다 4.0%가 높은 65.0%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하천 정비 909억 원은 '민경강 신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방의 신설 및 보강, 하도정비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하천 정비지원 1423억원은 '동

천 하천재해예방사업(전남)'과 '옥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전북)' 등 총 96개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여 친환경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하천의 치수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유지보수 238억원은 제방, 저수로 등 주요 하천시설과 고수부지 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에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조성 및 국

민편의 증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지난 6일까지 교부를 완료했다.

이동호 하천계획과장은 "하천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천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2019 워크숍을 열었다.

## 원광대병원, 보직자 워크숍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은 지난 6일 익산시에 자리한 공웨딩홀 5층에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9 워크숍을 열었다.

원광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워크숍에서 임용 된 보직자들에게 새롭게 개편 된 조직과 소속 별 부서장 소개, 비전 및 경영 방침 등이 소개 됐다. 윤병원장은 워크숍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장차 의료계의 변화와 발전이 심화되어 가면 병원이 지향해야 할 점들과 혁신 되어 가는 현실들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광대학교병원의 미래 방향을 제시 하면서 향후 의료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 기반, 공급자 중심이 환자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며 본원이 비록 인

구 30만의 지방 중소 도시에 자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탑텐(TOP10)의 병원에 자리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비전을 설명했다.

온라인 마케팅 시대,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플랫폼 헬스케어 시스템을 준비하고 명실 공히 글로벌 명문 병원으로 도약하는 이노베이션을 갖추어 제생의세(濟生濟世)의 초심으로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선도해 가는 병원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병원측은 이번 열린 워크숍이 주요 보직자들에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발전적인 희망 사항들이 전 직원들에게 각인되어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조용주 기자

## 군산시, 공동주택 주민 문화 공동체 활성화 조성

군산시가 성숙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 등 두 분야로 나눠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나섰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10개 단지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해 텃밭 가꾸기, 한마음잔치, 공동육아, 친환경제품 만들기 사업이 펼쳐진다.

입주민 간 공동이용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 보수'에 2개 단지에 800만원까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사업 모두 보조금의 30% 이상 자부담 비율이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12개 단지를 선정하고 4월중 개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금은 2배로 늘리고 자부담 비율은 대폭 줄



여 더욱 폭 넓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군산시 소재 공동주

택 단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주택행정과에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강력 대응 방침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현장 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폭행사태는 21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구급대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현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와 폭행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의 폭행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 및 대학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수 있는

마트시티로 선정되면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민간기업, 대학, 지자체가 함께 사업기획, 솔루션,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군산시는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ICT기술을 활용한 도

시문제 해결과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 오후 5시 까지 시 투자유치지원단을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투자유치지원단 ☎454-4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도내 첫 시민청원제도 '시민공감의 장' 시행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이 시범운영 테스트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7일 본격 운영된다.

정현을 시장의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원제도는 주요시책이나 현안이슈, 제도·자치법규 개선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듣는 온라인 소통창구로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민누구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시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의 메인화면에 마련된 '익산시장 정현을입니다 - 시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30일간 1,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은 20일 이내에 공식답변이 제공된다.

또한, 내실 있는 시민청원제도가 되도록 분야별·지역별 청원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하고 반기별 우수청원을 선정하는 등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이번 시민청원제도 시행으로 시민참여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시민중심 도시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민청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시 발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익산시는 7일 옹포면에 옹포보건지소를 신축했다.

## 익산시, 옹포보건지소 신축 준공식

익산시는 지난해 7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옹포면 옹포리 888-1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9.51㎡ 규모로 옹포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익산시장 참석한 가운데 7일 준공식을 가졌다.

내외부의 구조적인 균열로 우선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진료공간도 협소하여 불편사항이 많았다. 옹포보

건지소에는 건강증진실이 추가로 설치되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명란 익산보건소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